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금 연구시대 개막

축산연구소는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성환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가금과 이전에 따른 가금종합 연구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축산연구소는 지난 4년간 가금연구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26개동의 현대화된 실험계사를 신축하였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가금연구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축산연구소 윤상기 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생산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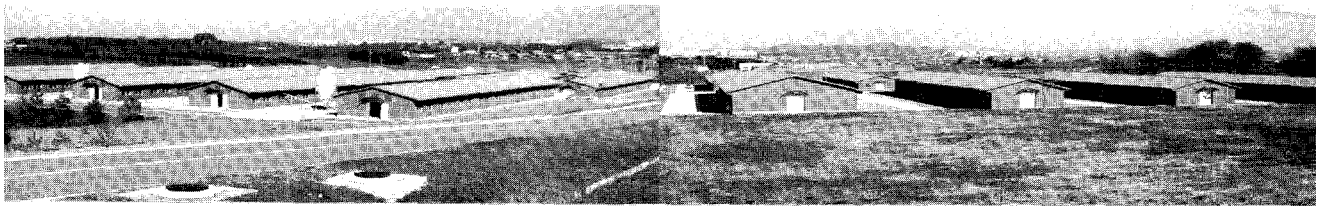


▲ 지난 11월 12일 충남 성환 소재 축산연구소에서 가금종합연구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테이프 커팅 장면(좌부터 남기홍 가금 학회장, 김규중 오리협회장, 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 윤상기 축산연구소장, 김강식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장, 박영인 자조금연구원이사장, 한성욱 충남대명예교수, 정선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명예교문, 한형석 한국계 육협회장, 백인기 중앙대학교교수)

### 가금종합연구단지 조성, 이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는 지난 1956년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에

서 반세기 동안 가금관련 연구사업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규제강화로 노후, 낙후된 시설의 신축이 제한되어 대전 부지에서는 연구, 기반조성이 불가하다는 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26개동 계사(검정계사, 환경조절 계사 등)

단아래 가금전문 연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환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로 연구시설을 이전키로 하고 2001년부터 5개년 간의 사업기간을 두어 추진한 결과 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8월부터 모든 가금류와 인원을 이전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성환에 마련된 가금종합연구단지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가금연구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10ha로 연구동(2,957㎡), 연구용계사(10,110㎡), 부속시설(1,628㎡)이 차지하고 있는데 검정계사, 환경조절계사 등 26동 및 부속시설로 계분처리장, 도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 마지막년도인 2005년에는 조정 및 안전시설이 들어서면 완벽한 가금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체계적인 가금 연구사업 본격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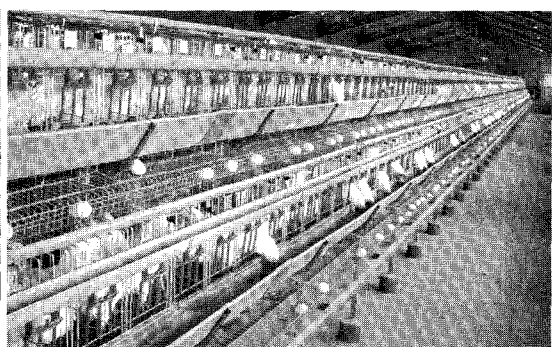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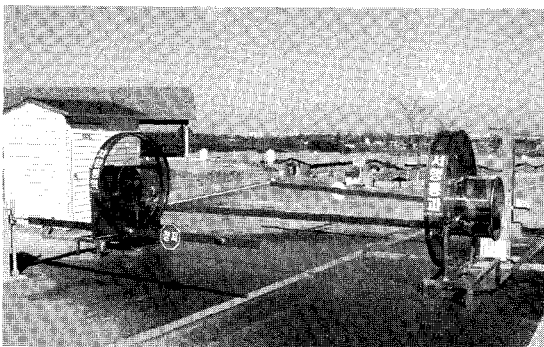
이번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40여억원으로 자동화 케이지, 환경조절 항온항습기 등 첨단 기자재와 각종 분석기자재 등 50종의 첨단기

기가 갖추어져 명실상부한 가금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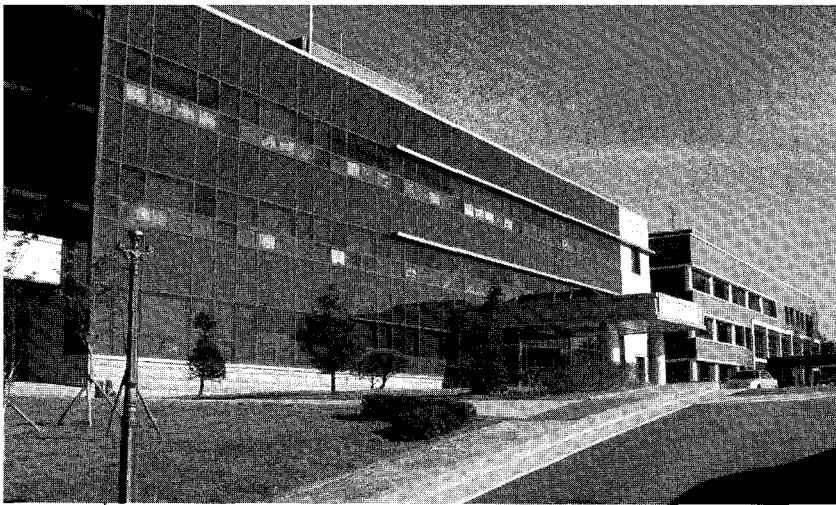
시험시설은 크게 검정계사, 환경조절계사, 암수 혼사계사, 부화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정계사에서는 한국재래닭 순수계통 조성 및 유전특성 연구, 순종계 능력검정, 고유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작출 연구가 이루어지며, 사양시험 계사에서는 가금사양 및 경영기술 개선 연구, 고품질 안전 양계산물 생산연구, 닭고기 수출산업 지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조절계사는 가금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음원개발, 가금 영양소 대사 연구, 가금 행동생리 연구가 진행되며, 암수 혼사계사에서는 실용재래닭 균일도 향상 연구, 가금정액의 수정효율 및 보존성 개선 연구, 우수 유전자원 보급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부화장에서는 적정 종란 처리 및 보관 방법 연구, 부화율 향상 연구, 암수 성비 조절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금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현재 검정계사에는 초생추 21,840수, 중추 12,312수, 암탉 8,960수, 수탉 1,824수가 현



차단방역 시설(좌)과 검정계사 내부모습(우)



실험데이터 분석 및 각종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가금연구동

(전 가금과장)을 필두로 가금사업 업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덕수 과장을 비롯한 가금과 직원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재 사육되어지고 있다.

## 농가소득 향상 기대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는 이상진 부장

특히, 이덕수 가금과장은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국들과 같이 우수한 독립된 가금 연구기관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가금산업의 고유특성을 살린 연구 및 기술산업화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표1. 가금과 직원 및 업무현황

소 속	직급(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과 장	이덕수	-가금과 업무 총괄 -수출전담연구팀장(농진청)	
가금 육종 번식 연구실	연구사	최철환	-가금 육종번식 연구 -과 기획 및 현장운영 총괄 -한국재래닭 연구회 운영	연구실장
	연구사	김학규	-가금 육종번식 연구 -육종번식 실험실 및 부화장 운영 -계연회 운영	
가금사양 연구실	연구관	강희설	-가금사양 및 안전양계산물 생산 연구 -과 주무 및 정책적 대외업무 지원 -예산 및 이전업무 총괄	연구실장
	연구사	나재천	-가금사양 및 경영기술 개선연구 -산란계 시험계사 운영 -과 교육 및 홍보업무	
	연구사	김상호	-가금사양 및 사료·영양 연구 -통합분석실 및 환경조절계사 운영 -비품관리	
	가축위생 연구사	장병귀	-가금질병 및 관상조류 연구 -닭고기 수출연구팀 업무 -과 서무 및 육계 시험계사 운영	가축위생 연구팀
	박사 후 연구원	김지혁	-가금사양 및 오리관련 연구 -가금학회 업무	

특히 양계인들에게는 저렴하고 고급단백질의 공급 특성을 살려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며, 한국 기후의 특성에 맞는 계사구조 및 환기체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실정에 맞는 가금 개량사업 즉, 내병성이 강한 백색계 생산체계 유도, 한국 재래닭의 지속적 개량 보급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밖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형 육계 생산 기술정립, 생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기술 강화, 현장 활용기술 및 수출용 닭고기 생산 지원기술에도 지속적인 연구계획을 밝혔다. **양계**

취재 | 김동진 팀장  
dj@poultry.or.kr